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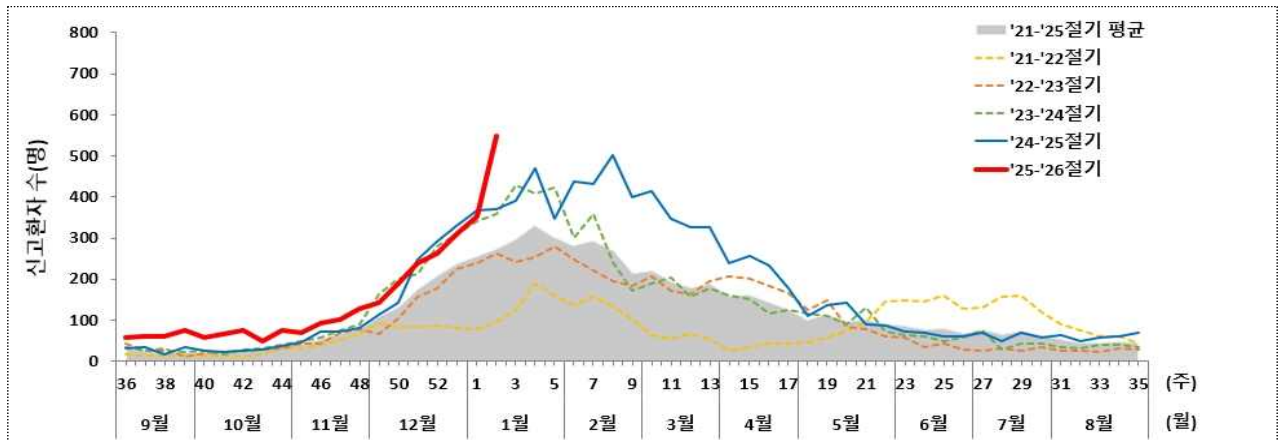
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, 영유아 예방수칙 준수 당부

- 최근 5년 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 최대 수준('26년 2주, 548명), 영유아(0~6세) 연령층 비중이 전체 환자 중 39.6% 차지
-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,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
- 환자 발생 시 등원(교) 자제 및 주변 환경 소독 요청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면서,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 시설(어린이집, 키즈카페 등)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.

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(210개소)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,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('25년 45주)부터 지속 증가하여, 1월 2주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. 특히, 전체 환자 중 0~6세 영유아의 비중이 39.6%를 보였다.

- * 최근 5주 발생: ('25. 12월 2주) 190명 → (12월 3주) 240명 → (12월 4주) 262명 → ('26년 1월 1주) 354명 → (1월 2주) 548명
- * 연령별 비율(1월 2주 기준): (0~6세) 39.6%, (7~18세) 24.8%, (19~49세) 17.7%, (50~64세) 5.7%, (65세 이상) 12.2%



【 최근 5년('21~'26년) 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(잠정) 】

2025년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* 사례(627건)를 분석한 결과, 원인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102건 중 61.8%(63건)가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되었다. 이 가운데 영유아 관련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비중이 71.4%(45/63건)로 가장 높았다.

* 2명 이상 동일한 음식물 등을 섭취하여 설사, 구토 등 유사한 장관감염증상을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'25년 잠정통계임

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(11월~3월)까지 주로 발생한다.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(지하수) 혹은 음식물(어패류 등)을 섭취한 경우이나,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.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~48 시간 안에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, 사람에 따라 복통, 오한,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.



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,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℃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.

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,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,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. 또한,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.

특히, 노로바이러스는 소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환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. 이에 구토나 설사 발생 장소 내 장난감 등 모든 물품과 문고리 등 접촉 표면에 대해서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한다.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동절기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손씻기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도록” 당부하면서, “개인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영유아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·관리 수칙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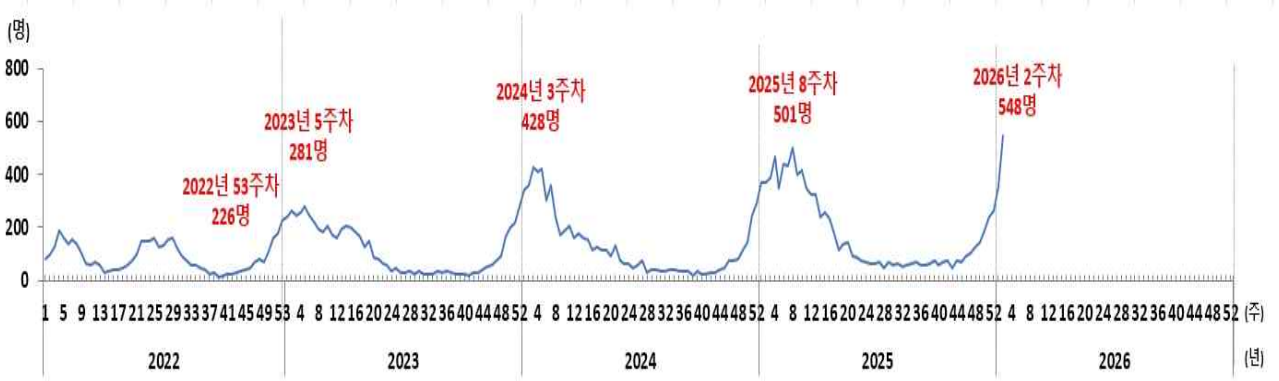
일상생활 시	환자 발생 시
① 올바른 손씻기(외출 후, 식사 전, 배변 후,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) ② 채소·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, 껍질은 벗겨 먹기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(중심온도 85℃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) ④ 끓인 물 마시기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- 칼·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- 조리도구는 구분(채소용, 고기용, 생선용)하여 사용	①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, 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②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 ③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④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, 접촉환경,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- 가정용 락스 희석액(락스1: 물 39)으로 염소 소독 - 세탁물은 70℃ 이상에서 세탁하거나, 락스 희석액 (락스1: 물 266)으로 5분 이상 헹굼 ⑤ 올바른 손씻기로 개인위생 준수

- <붙임>
1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개요
 2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발생 현황
 3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질의응답
 4. 「노로바이러스」 구토물·설사물 발생시 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
 5. 「노로바이러스 감염증」 예방수칙 홍보자료
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형민 (043-719-7140)
		담당자	연구관	서순영 (043-719-7157)

정의	□ 노로바이러스(<i>Norovirus</i>)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
질병분류	□ 법정감염병 : 제4급 감염병 □ 질병코드 : ICD-10 A08.5
병원체	□ <i>Norovirus</i> - <i>Caliciviridae</i>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-32nm의 크기, 소장 미세용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
병원소	□ 사람
전파경로	□ 분변-구강 경로 감염
잠복기	□ 10~50시간(12~48시간)
진단	□ 검체(대변, 직장도말물, 구토물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증상	□ 주요 임상적 증상은 설사, 구토, 복통 등 □ 1~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,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
치료	□ 대증 치료 :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, 전해질 보충
치사율	□ 대부분 회복하고, 사망은 드물
관리	□ 환자관리 : 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, 보육시설·요양시설 종사자, 간호, 간병,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,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□ 접촉자관리 : 발병여부 관찰 □ 환경 관리 - 구토물, 접촉환경,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(시판용 락스희석액 (락스 1: 물 39) 활용)
예방	□ 일반적 예방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* 음식조리 전, 수유하기 전, 배변 후,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, 외출 후 - 안전한 음식 섭취 : 음식 익혀 먹기, 물 끓여 마시기

○ 최근 5년간 환자 발생 추이(2022-2026)



* 2025년, 2026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

** 수행기관 : 질병관리청 / 전국 210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(병원급 이상)

*** 2025년 기준 표본감시기관 210개(상급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공공병원)

○ 최근 5주간(12.7.-1.10.) 연령별 환자 발생현황(잠정통계)

	50주 (12.7.-12.13.)	51주 (12.14.-12.20.)	52주 (12.21.-12.27.)	1주 (12.28.-1.3.)	2주 (1.4.-1.10.)
전 체	190	240	262	354	548
0-6세	71 (29.6%)	101 (38.5%)	125 (47.7%)	141 (39.8%)	217 (39.6%)
7-18세	61 (25.4%)	69 (26.3%)	54 (20.6%)	90 (25.4%)	136 (24.8%)
19-49세	21 (8.8%)	34 (13.0%)	47 (17.9%)	70 (19.8%)	97 (17.7%)
50-64세	7 (2.9%)	13 (5.0%)	11 (4.2%)	21 (5.9%)	31 (5.7%)
65세 이상	30 (12.5%)	23 (8.8%)	25 (9.5%)	32 (9.0%)	67 (12.2%)

Q1 「노로바이러스감염증」이란 무엇인가요?

해답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.
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.
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병원체 중 하나입니다.

Q2 「노로바이러스감염증」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?

해답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~2일 안에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, 오한,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증상은 2~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. 영아, 노인,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Q3 「노로바이러스감염증」은 어떻게 감염되나요?

해답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,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.
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,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Q4 「노로바이러스감염증」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?

해답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2~3일 후에 회복합니다.
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○ 어린이집·유치원

Q1

왜 구토물·설사물 처리가 중요한가요?

노로바이러스는 구토, 설사를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.

주요 특징

- 1. 감염력이 매우 강함**
단 18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음
- 2. 강한 생존력**
소독되지 않은 표면·환경에서 생존력이 높음
- 3. 감염경로**
 -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대변을 접촉하는 경우
 - 구토시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변 표면을 오염시키는 경우
 -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는 경우
- 4. 주요 증상**
구토, 설사, 오심, 복통 등
- 5. 잠복기**
바이러스에 노출되고 10~50시간 후 증상 발생
- 6. 주로 겨울철(11~4월) 발생**

Q2

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

노로바이러스 감염증, 함께 예방해요!

- 손 씻기의 생활화**
 - 조리 전후, 식사 전, 화장실 사용 후, 기저귀 교체 후, 구토물·설사물 처리 후 꼭 손을 씻으세요
 - * 알코올 손 소독제는 노로바이러스에 효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, 비누와 물로 손씻기 필수
- 아플 때는 쉬세요**
 - 구토 또는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및 출근을 제한하도록 권고드립니다
- 위생적으로 조리하기**
 - 음식은 85°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세요(특히, 굴을 포함한 조개류는 완전히 익혀 드세요)
 -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은 즉시 버리세요
- 시설 소독**
 -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세요

어린이집, 유치원용

소중한 우리아이를 지키는 첫걸음
노로바이러스
구토물·설사물 발생시
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



질병관리청

구토물·설사물 발생시
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

* 구토·설사 시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주변 3~8m 이내 물품과 표면에 부착·오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범위 내 모든 물품과 표면을 반드시 청소·소독해야 합니다.

- 준비물**
- 일회용 위생장갑, 마스크, 일회용 앞치마
 - 희석된 소독제, 종이타월(흡수제), 배출용 밀폐봉투

- 일반 원칙**
- 1) 구토물이나 설사물은 바로 치워주세요
 - 2) 청소한 뒤에는 꼭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세요
 - 3) 교실은 자주 환기해주세요

Step 1 청소 준비하기

- 아이들 분리**
청소와 소독이 끝날 때까지 오염된 장소나 물건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
- 보호 장비 착용**
일회용 장갑, 마스크, 앞치마 등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주세요
- 환기**
창문을 열어 환기해주세요

Step 2 청소하기(구토물·설사물 제거하기)

- 순서**
1. 오염 가능성이 낮은 표면 (전등 스위치, 문 손잡이 등)
 2. 오염 가능성이 높은 표면(화장실, 책상 등으로 이동하며 청소합니다)
- 방법**
1. 휴지, 흡수재(천, 종이 타월 등)를 사용해 구토물·설사물 흡수하여 닦기
 2.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헹구기
 3. 종이 타월로 건조하기
 4. 모든 폐기물은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하기

Step 3 소독하기

- 소독 방법**
- 청소가 끝난 후, 희석된 염소계 소독제(락스 등)를 표면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최소 10분간 유지해주세요
 - 이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주세요

※ 소독제 희석방법 - 1,000~5,000ppm 농도로 희석해 사용해주세요

농도	소독 범위	소독 가능 범위	비고	희석한 소독제 비유
1,000ppm	단일하고 제한된 리프트용 공간	화장실, 싱크대, 세면대, 변기, 기저귀 교환대, 급수조	구토·설사 후 신속 소독	한약 25mL + 975mL
5,000ppm	흡수성 표면	바닥구, 화장실 벽면, 욕조, 욕조지 않은 콘크리트, 복채터	단시간 소독 권장, 높은 농도여도 표면 손상 주의	한약 125mL + 875mL

Step 4 손 씻기

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

- 특별 관리**
- 식기·장난감**
구토물·설사물 청소 및 소독 후 깨끗한 물로 헹군 후 *세척이 어려운 물품(분필, 크레용, 찰흙 등)은 폐기
 - 의류·침구류**
구토물·설사물 제거 후 세탁 전 세척 후 70°C 이상 세탁 후 건조 *오염물과 비오염물을 함께 세탁하지 않음

- 주의사항**
- 소독제는 매일 새로 희석해 사용하세요
 - 여러 소독제를 섞어 사용하지 마세요(유독가스 발생 위험)

참고자료

- 2025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
-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, Norovirus toolkit for school and childcare center outbreaks, Sacramento (CA);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; 2018.
- UK Health Security Agency, Stop norovirus spreading, London(UK); UK Health Security Agency; 2023.

○ 학교용

왜 구토물·설사를 처리가 중요한가요?

노로바이러스는 구토, 설사를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.

주요 특징

- 1 감염력이 매우 강함**
단 18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음
- 2 강한 생존력**
소독되지 않은 표면·환경에서 생존력이 높음
- 3 감염경로**
 -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대변을 접촉하는 경우
 - 구토시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변 표면을 오염시키는 경우
 -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는 경우
- 4 주요 증상**
구토, 설사, 오심, 복통 등
- 5 잠복기**
바이러스에 노출되고 10~50시간 후 증상 발생
- 6 주로 겨울철(11~4월) 발생**

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

노로바이러스 감염증, 함께 예방해요!

손 씻기의 생활화

- 조리 전후, 식사 전, 화장실 사용 후, 구토물 설사물 처리 후 꼭 손을 씻으세요



아플 때는 쉬세요

- 구토 또는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도록 권고드립니다



위생적으로 조리하기

- 음식은 85°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세요(특히, 굴을 포함한 조개류는 완전히 익혀 드세요)
-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은 즉시 버리세요



시설 소독

-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세요



학교용

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

노로바이러스 구토물·설사를 발생시 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



질병관리청

구토물·설사물 발생시 올바른 처리 방법 안내

* 구토·설사 시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주변 3~8m 이내 물품과 표면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범위 내 모든 물품과 표면은 반드시 청소·소독해야 합니다.

준비물



일반 원칙

- 1) 구토물이나 설사물은 바로 치워주세요
- 2) 청소한 뒤에는 꼭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세요
- 3) 교실은 자주 환기해주세요

Step 1 청소 준비하기

- 학생 분리**
청소와 소독이 끝날 때까지 오염된 장소나 물건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

- 보호 장비 착용**
일회용 장갑, 마스크, 앞치마 등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주세요

- 환기**
창문을 열어 환기해주세요

Step 2 청소하기(구토물·설사물 제거하기)

- 1 순서**
오염 가능성이 낮은 표면 → 오염 가능성이 높은 표면(화장실, 진동 스위치, 문 손잡이 등) 핵심 등으로 이동하며 청소합니다
- 2 방법**
 - 1 휴지, 흡수재(천, 종이 타월 등)를 사용해 구토물·설사물 흡수하여 닦기
 - 2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헹구기
 - 3 종이 타월로 건조하기
 - 4 모든 폐기물은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하기

Step 3 소독하기

- 소독 방법**
 - 청소가 끝난 후,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(락스 등)를 표면 전체에 골고루 뿌리고 최소 10분간 유지해주세요
 - 이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주세요

소독제 희석방법 - 1,000~5,000ppm 농도로 희석해 사용해주세요

농도	소독 부위	소독 가능 범위/예시	비고	희석한 소독제 비율
1,000 ppm	단일하고 깨끗한 위생수리 표면	화장실 입구, 세면대, 전기 스위치/조절대	구토/설사 후 신속 소독	원액 25mL + 975mL
5,000 ppm	흡수성 표면	배수구, 화장실 배 배덕, 화장실기, 문 손잡이, 책상/책상	단시간에 소독 권장, 높은 농도/과다 사용 시 표면 손상 주의	원액 125mL + 875mL

Step 4 손 씻기

-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

폐기물 관리

- 식기·물건**
구토물·설사물 청소 및 소독 후 깨끗한 물로 헹굼
* 세척이 어려운 물품(분말, 크레용, 칠판 등)은 폐기

의류·침구류

- 구토물·설사물 제거 → 세탁 전 세척 → 70°C 이상 세탁 후 건조
* 오염물과 비오염물을 함께 세탁하지 않음

주의사항

- ✓ 소독제는 매일 새로 희석해 사용하세요
- ✓ 여러 소독제를 섞어 사용하지 마세요(유독가스 발생 위험)

참고자료

- 2025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
-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, Norovirus toolkit for school and childcare center outbreaks. Sacramento (CA):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; 2018.
- UK Health Security Agency, Stop norovirus spreading. London(UK): UK Health Security Agency; 2023.

겨울철 특히 조심!

노로바이러스 함께 예방해요!

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



비누로 30초 이상
손 자주 씻기



음식은 충분히
익혀 먹기



변기 뚜껑 닫고
물 내리기



아프면
집에서 쉬기

뽕뽕 개끗하게
손 씻어요~!

